

●●● 남기홍 대구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동물자원학과 교수

정체되어 있으면 결코 발전할 수 없다



▲ 남기홍

1975 계명대학교 교수
1984 미국 사우스다코다 주립대학(박사)
1984~85 사우스다코다 농업연구소(연구원)
1986 대구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1988~92 대구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2003~04 한국가금학회장

본고는 경북 경산시 진량면에 위치한 대구대학교 동물자원학과에서 후학 양성 및 연구에 여념이 없는 남기홍 교수(61)를 찾아 최근의 근황을 들어보았다.

남기홍 교수는 지난 1975년 계명대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한 이후 1980년대 초에 뜻하는 바가있어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사우스다코다주립대학에서 가금학 및 생화학 등을 공부하고 '효소 첨가가 육계의 육질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당시 현지에서 수의학을 전공한 부인을 만나 결혼한 이후 2남을 두고 있으며, 1986년부터 대구대학교에서 동물자원학과(축산과) 교수로 현재까지 후학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남기홍 교수는 현재 대학에서 가금학 및 양조학, 영양학, 생화학, 사료자원학 등을 가르치고 있다.

환경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남기홍 교수는 평소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5-6년 전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 가축환경에 대해 국내에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다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미국에서 배워온 생화학 등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화학약품을 처리해 닭 등 가축의 계분 등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남기홍 교수는 방학을 이용해 여름과 겨울 2차례씩 미국에 건너가 연구자료를 찾아온다. 물론 1990년 초부터 가족들이 미국에 건너가 있기 때문에 방문하기도 하지만 연구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가축환경에 대한 연구에 몰입하다 보니 지난해 11월부터는 남 교수의 수제자로 키워온 최인하 박사를 미국 알칸사스대학교에 보내 2년간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포스닥(Post Doc) 과정을 진행중에 있다. 알칸사스주는 육계최대 계열사인 타이슨(Tyson)사가 위치해 있는 곳으로 육계사육에 대한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계장에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연구도 상당부분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알칸사스에서 가축환경의 1인자로 알려진 무어(Moore) 박사로부터 전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박사가 국내에 돌아오면 가축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자신감을 보였다.

우수 교수상 수상

남기홍 교수는 교내 700여명의 교수들중 국내외 학위논문 발표 및 활동상황을 토대로 평가하여 수여하는 우수교수상을 3차례나 차지할 정도로 학교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에는 전교에서 1등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다. 이 같은 성과는 무던히 노력하는 남교수의 열성에서 찾을 수 있다. 남교수는 주말에도 인근 양계장을 찾아 닭과 함께 지낼 정도로 연구에 몰

두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3년부터 1년간 가금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이론과 실전을 결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가금학회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힘썼다. 가금학회지는 학술재단의 등재지로 등단해야 질 좋은 논문들이 투고되어 양계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등재에 힘썼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7월 가금학회지가 등재지로서 적합한지 학술재단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국내 위상 국외로

남교수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알칸사스 소프링필에서 개최되는 2006 국제가금부산물 경영심포지움에 한국대표로 초대받아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남교수는 외국에는 잘 알려진 인물이다. 세계 저명한 축산학회지 등에 여러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는가 하면 핀란드와 미국 등에서 발행하는 축산환경잡지 등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남교수는 양계인들이나 학자들 모두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았다. 정체해 있으면 모든 것이 편할 수 있지 모르지만 결코 발전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 FTA의 경우도 무조건적인 시위보다는 보다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역량을 모아 슬기롭게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교수는 학생들에게 4년간의 학창시절을 보내며, 무언가 최소한 1가지는 얻어가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려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던히 노력하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함을 강조했다. 남교수는 정년 이후 '유기닭(Organic Chicken)'을 길러보고 싶다는 것이 소박한 꿈이다. 배운게 닭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지만 평생 닭연구에 정진하고도 모자라 닭과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 양계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심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